



- 작 곡 : 앤드류 로이드 웨버
○ 제 작 : 캐머런 매킨토시 ○ 소요시간 : 160분
○ 출 연 : 리먼 카림루(팬텀), 시에라 보게스(크리스틴),
하들리 프레이저(울)

9월 12일(목)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 25주년 기념 로열 알버트홀 공연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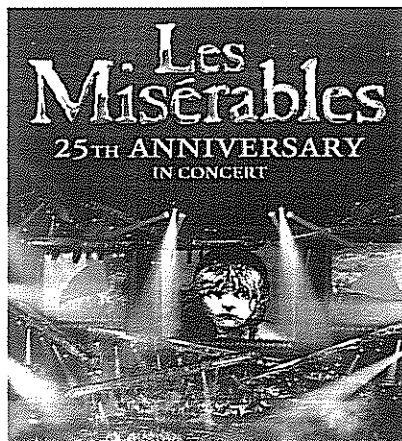
지난 2011년 10월 1일,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탄생 25주년 기념 공연이 영국 런던의 유서 깊은 로열 알버트홀에서 펼쳐졌다. 1986년 초연된 이 작품은 공연 횟수는 물론 관객수 그리고 공연수익 면에서도 전 세계 모든 영화와 연극, 발레, 오페라 등을 통틀어서 급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면서 그 명성을 과시하고 있다. 그 명성에는 가면 속에 감춰진 팬텀과 크리스틴, 라울의 안타까운 리브스토리 그리고 클래식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 17층 규모의 파리 오페라하우스를 그대로 재현한 환상적인 무대의 역할이 크다. 특히 30만개의 유리구슬로 제작된 500kg의 샹들리에는 이 작품의 백미이다. 13m 높이의 천장에 매달려 있던 샹들리제가 앞쪽 객석을 통과해 무대 위로 곤두박질치는 1막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자욱한 안개 사이로 솟아오른 281개의 촛불 사이로 팬텀과 크리스틴을 실은 나룻배가 등장하는 지하 호수장면은 언제 봐도 아름답다. 철저한 고증을 기친 1000여벌의 화려한 의상 등 셀 수 없는 다양한 볼거리가 관객을 유혹한다.

9월 13일(금) 오페라 〈카르멘 : 2010 메트로폴리탄 공연실황〉

올리비에상을 수상한 연출가 리처드 아이어는 비제의 〈카르멘〉을 두고 “모든 면에서 섹시하고 충격적인 작품이다. 섹스와 폭력 그리고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의 결론은 자유이다”라고 평했다. 그의 말처럼 이 작품은 기존 청순가련형 소프라노 여주인공의 전통적 이미지와 도덕성을 뛰어넘는 메조소프라노의 강인하면서도 관능적인 여주인공 카르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안달루시아의 집사이자 최하층 노동자계급의 여자인 카르멘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키려했던 것은 결국 투우사의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집사의 유일한 재산인 자유였음을 보여준다. 불같은 열정과 넘치는 에너지로 시종일관 관객을 사로잡는 엘리나 가랑차의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연기, 그녀의 강렬한 매력에 반해 사랑에 빠지지만,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마는 비극적인 캐릭터 돈 호세역의 ‘로멘틱 프렌치’ 로베르토 알라니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 젊은 가장 아닌 내제-세겐의 지휘, 세계 최정상 안무가 크리스토퍼 윌든의 안무로 강력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카르멘〉을 지금 만 나본다.



- 지 휘 : 아낙 내제-세겐
○ 안 무 : 크리스토퍼 윌든 ○ 소요시간 : 167분
○ 출 연 : 엘리나 가랑차(카르멘),
로베르토 알라니(돈 호세)



- 작 곡 : 미셸 산베르그
○ 연 출 : 트레버 난 ○ 소요시간 : 169분
○ 출 연 : 알피 보(장발장), 레아 살롱가(반틴),
리먼 카림루(앙줄리), 닉 조나스(마리우스)

9월 14일(토) 뮤지컬 〈레 미제라블 : 2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실황〉

빅토르 위고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피 끓는 혁명정신, 노동자와 농민들의 거친 저항,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애를 다룬 초대형 오페라형 뮤지컬 〈레미제라블〉. 1980년 파리에서 초연된 이 작품을 뮤지컬 제작자인 카메론 매킨토시가 개작, 1985년 10월 런던 바비칸 극장에서 새롭게 무대에 올리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10년 10월 〈레미제라블〉 탄생 25주년을 맞아 런던의 O2센터 무대에서 올린 이 특별한 공연은 1985년 오리지널 캐스트와 25주년 기념 캐스트가 함께하는 환상적인 무대로 영원히 잊지 못할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영국 출신의 스타 알피 보, ‘조나스 브라더스’의 조나스, 리먼 카림루, 레아 살롱가 등이 출연하여 무대를 더욱 빛낸다. 최장기간 연속 공연 뮤지컬로도 기록된 〈레미제라블〉, 시대와 사상을 뛰어넘어 고전의 힘을 보여주는 최고 뮤지컬의 역사적인 25주년 현장을 그 감동 그대로 느낄 수 있다.